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21년 17호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it.kita.net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2021년 5월

동향분석실 강내영 수석연구원
강성은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CONTENTS

[요 약]	i
I. 연구배경	01
II.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02
III.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요인 분석	12
IV. 수입원자재 가격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15
V. 국제원자재 가격의 우리 수출에의 영향	19
VI. 결론 및 시사점	21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동향분석실 강내영 수석연구원 (☎ 02-6000-5259, ny.kang@kita.or.kr)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며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완화 기조, 주요국 친환경 에너지 정책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과도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을 분해하고,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물가파급효과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을 살펴봤다.

변동요인 분석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와 위험자산선호 두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86.8%를 첫 번째 주성분인 글로벌 경기가, 두 번째 주성분인 위험자산 선호가 22.3%를 각각 설명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호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제원자재의 가격변동은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 가격에 변동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수입원자재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파급효과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자재 관련 품목의 가격이 10% 상승 시, 국내 생산자 물가가 평균적으로 금융위기 직후(2010년 기준)에는 0.62% 상승으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 들어서는 0.43% 상승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국제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비철금속(2018년 수입의존도 55.7%, 물가파급효과 2.87%), 철강(34.9%, 1.77%), 석유화학(31.4%, 1.48%) 등을 중심으로 물가 파급효과가 컸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수출단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수출단가 0.7% 상승, 수출물량 0.25% 감소를 초래하여 수출금액 면에서는 0.45%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 유가가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 확보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원자재 공급원의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중장기적인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ମାମୁ

I. 연구배경

- 국제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며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세계경기의 회복과 원자재 수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같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과도한 오름세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자원 확보 경쟁심화 등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제기됨
- 국제원자재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과도 높은 상관성을 보임
- 이에 본 보고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최근 움직임과 전망을 짚어본 후, 1) 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을 분해하고, 나아가 2)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물가파급효과 및 3) 우리 수출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우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모형을 활용하여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을 분해하여 공통요인과 개별요인으로 분석함
- 이어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기반으로 분석
-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수출단가 및 물량으로 나누어 계량분석을 실시함

II.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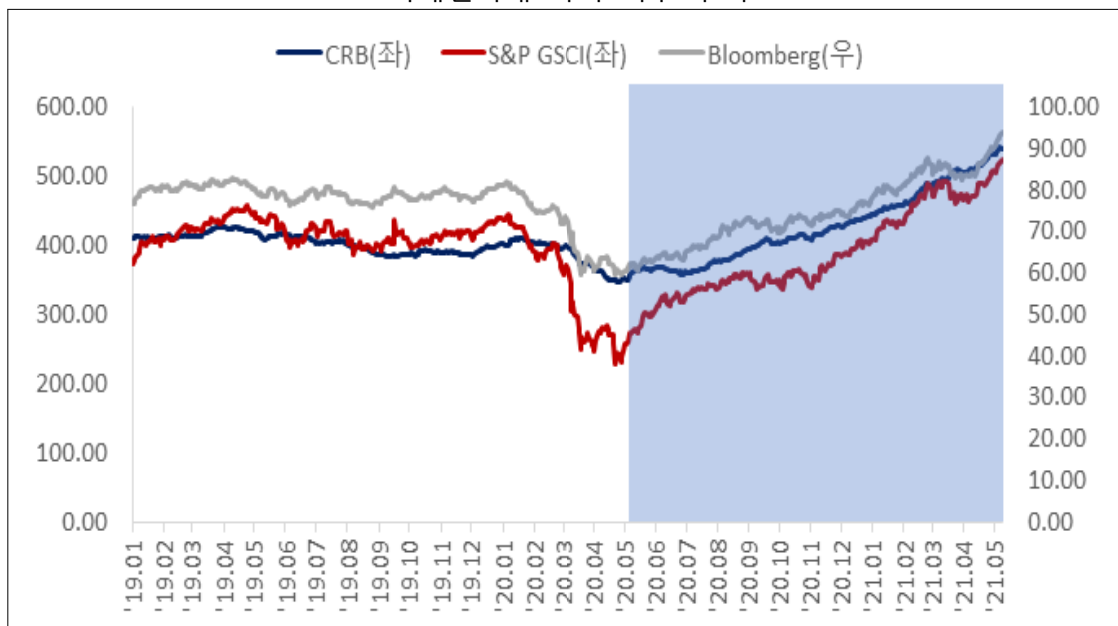
■ 국제원자재 가격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3~4월 중 급락한 뒤 빠르게 반등해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는 지난해 3~4월 저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 올해 5.10일 기준 저점 대비 평균 81.1% 상승

– S&P GSCI, CRB Index, 블룸버그 상품지수는 올해 5.10일 기준 각각 저점 대비 129.2%, 55.7%, 58.4% 상승¹⁾

*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4월 배럴당 20.4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60달러를 넘기며 3배 이상 상승해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 중 원유 구성 비중이 가장 높은 S&P GSCI 지수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국제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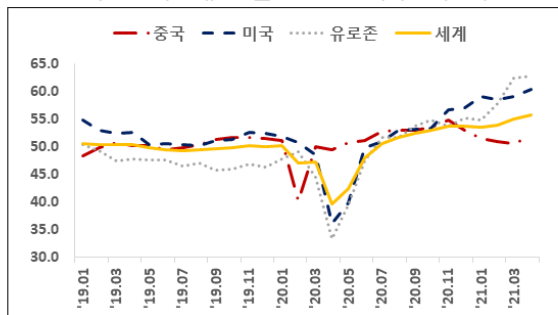
주 : CRB Spot(1967=100), S&P GSCI Spot(1970=100), Bloomberg Spot(1990말=100)
자료 : CEIC

1) 국제원자재 지수는 원유, 비철금속, 귀금속, 곡물 등 주요 상품 가격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지수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원유, 비철금속,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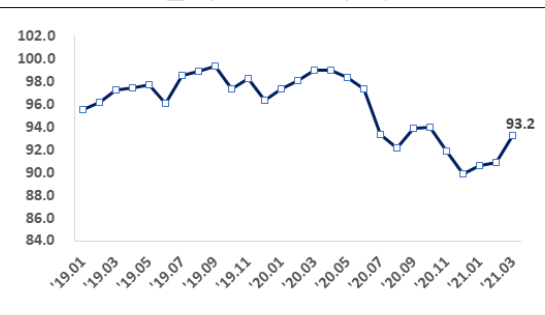
- 경제활동 재개 및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으로 원자재 수요는 증가했으나 OPEC+ 감산 기조 유지, 일부 광산 및 물류 등 공급 차질로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원자재 가격은 급등
- 이외에도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 위험자산 선호현상 심화 등도 복합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

<주요국 제조업 PMI 지수 추이>



자료 : IHS Markit, CEIC

<달러 Index 추이>



주 : 주요국 통화 대비 美달러 평균가치
자료 : 국제금융센터

■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원자재 수급여건 변화, 주요국 친환경 에너지 정책 영향 등에 따라 추이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

-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완화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주요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영향으로 향후 친환경 인프라 관련 원자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JP Morgan, Goldman Sachs 등 일부 IB들은 원자재 슈퍼 사이클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제시

*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은 지난 100년간 4차례 있었으며 그중 가장 최근 슈퍼 사이클은 미국 제로금리·달러 초약세·중국 투자 붐 등이 맞물렸던 1996~2008년 사이클. 최근 원자재 가격의 슈퍼 사이클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다만 OPEC+의 증산, 수급 불안 완화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보다 가파른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품목	전망
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수요 증가 및 OPEC+의 감산 유지로 지난해 연중 40달러 내외를 기록하던 유가는 올해 60달러선으로 올라섬 * 유가 추이(두바이유) : ('20.4) 20.4 → (7) 43.3 → (10) 40.7 → ('21.1) 54.8 → (2) 60.9 → (3) 64.4 → (4) 66.3 • (전망) 향후 강세기조가 이어지겠으나 OPEC+ 증산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올해 유가는 연중 60달러 내외 수준 유지 전망 * 2021년 유종별 유가 전망치 : (두바이유) 60.5 (WTI) 61.8 (브렌트유) 64.8
비철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 주요국 제조업 경기 개선 및 일부 광산 공급차질로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은 최근 급등해 비철금속 가격지수(LME Index)는 201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LME 지수 추이(기말기준) : ('11.7) 4,329.5 → ('20.3) 2,335.3 → (12) 3,414.5 → ('21.1) 3,455.8 → (2) 3,876.9 → (3) 3,781.1 → (4) 4,178.1 • (전망) 바이든 인프라 투자 부양책, 주요국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급여건에 따라 등락 가능성 * 2021년 비철금속 가격 전망치(달러/톤) : (구리) 8,499 (알루미늄) 2,078 (니켈) 16,825 (아연) 2,706 (납) 1,988 (주석) 22,845
곡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 중국 곡물 수요 증가, 이상기후 및 물류차질로 인한 공급부족 등으로 식량 가격지수(FAO Food Price Index)는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0년대 초반 수준에 근접 * 식량가격지수 추이 : ('14.5) 121.3 → ('20.1) 102.5 → (5) 91.0 → (12) 108.5.9 → ('21.1) 113.2 → (2) 116.0 → (3) 118.9 → (4) 120.9 • (전망) 중국은 강한 수입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 곡물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곡물가격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 * 2021년 곡물 가격 전망치(센트/부셀) : (옥수수) 538 (소맥) 620 (대두) 1,42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 코로나19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금 가격은 급등해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선을 넘겼으나 최근에는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약세를 보여 1,800달러 내외를 오가고 있음 * 금 가격 추이(기말기준) : ('20.1) 1,589 → (7) 1,976 → (11) 1,788 → ('21.1) 1,848 → (2) 1,734 → (3) 1,708 → (4) 1,769 • (전망) 경기회복이 빨라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 가격은 연중 1,800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 강세 요인 혼재 * 금 가격 전망치(\$/온스) : ('21.2Q) 1,775 ('21.3Q) 1,800 ('21.4Q) 1,768 ('21연간) 1,700

자료 : Bloomberg, 각종 언론 보도 및 증권가 리포트 저자 정리

1. 원유

■ 지난해 4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 미만으로 내려서면서 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변동성이 완화되며 유가가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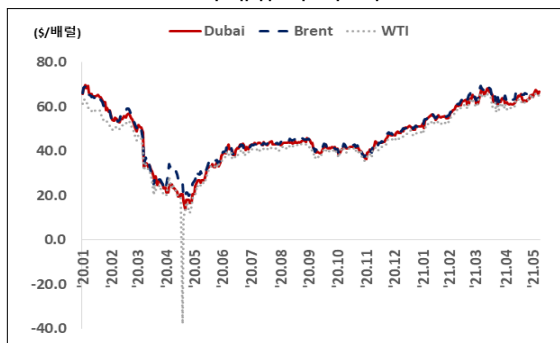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4월말 WTI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는 등 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

- 지난해 4월말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각각 13.5달러, 19.3달러까지 하락

-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가 변동성이 크게 완화 되었으며 유가는 최근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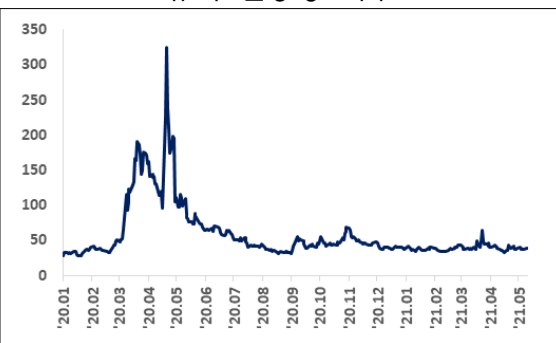
- 올해 5.10일 기준 두바이유 66.7달러, 브렌트유 68.3달러, WTI 64.9달러 기록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페트로넷

<유가 변동성 지수>



주 : 향후 30일 유가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
자료 :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Bloomberg

■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 및 OPEC+ 감산 유지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기인

-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원유 수요는 경제활동 재개 및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임

- 락다운 및 운송·여행 등 부진으로 원유 수요는 지난해 2분기 하루 8,340만 배럴로 감소했으나 경제활동 재개로 하반기 9,400만 배럴 내외 수준을 회복

-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은 올해 초까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

- 지난 5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산에 합의한 OPEC+는 감산을 올 4월까지 이어오면서 석유 공급이 제한

* OPEC+ 감산의무량(OPEC, 만 배럴/일) :

(’20.5~7월) 970.0 → (8~12월) 768.2 → (’21.1월) 720.0 → (2월) 712.5 → (3월) 705.0 → (4월) 690.0

<원유 수급 동향>

(단위 : 백만 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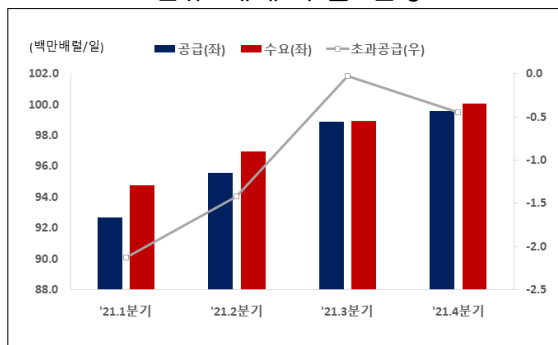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원유수요(A)	99.4	100.0	101.3	101.3	93.7	83.4	93.5	94.5
원유공급(B)	99.6	99.6	99.9	100.6	100.0	91.8	91.4	92.3
OPEC	36.2	35.6	34.9	34.7	33.6	30.9	29.2	30.1
非OPEC	63.4	64.0	65.0	65.9	66.4	60.9	62.2	62.2
초과공급(B-A)	0.2	-0.4	-1.4	-0.7	6.3	8.4	-2.1	-2.2

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페트로넷

■ 유가는 향후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OPEC+의 점진적 증산으로 추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연중 60달러 내외에서 등락 전망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본격적인 원유 수요 회복은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OPEC+의 점진적 증산에 따라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OPEC+도 올해 4월 5~7월 단계적 증산에 합의
- 향후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면서 유가는 연중 6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유가는 두바이유 60.5달러, WTI 61.8달러, 브렌트유 64.8달러 전망

<원유 세계 수급 전망>



자료 : EIA('21.5월)

<주요 유종별 유가 전망>

(달러/배럴)

기 간	DUBAI	WTI	BRENT
2021년 연간	60.5	62.0	64.8
2분기	62.0	62.0	65.0
3분기	63.0	62.0	65.0
4분기	59.0	61.0	65.0
2022년 연간	62.0	62.0	65.0

주 : 전망치 중간값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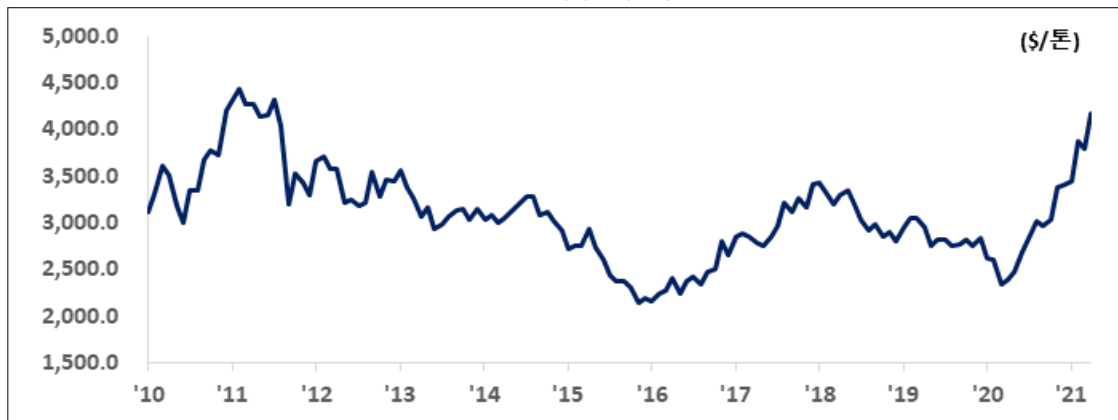
2. 비철금속

■ 비철금속 가격은 지난해 4월 저점을 찍은 뒤 급격하게 반등하여 201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

● LME(런던금속거래소가격) 지수²⁾는 지난해 3월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 하면서 최근 4,000달러선을 돌파

-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하면서 LME지수는 올해 4월말 4,178.1달러를 기록

<LME 지수 추이>



자료 : LME, Bloomberg

■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인프라·그린뉴딜 관련 수요 증대와 일부 광산 생산 차질로 인한 공급 부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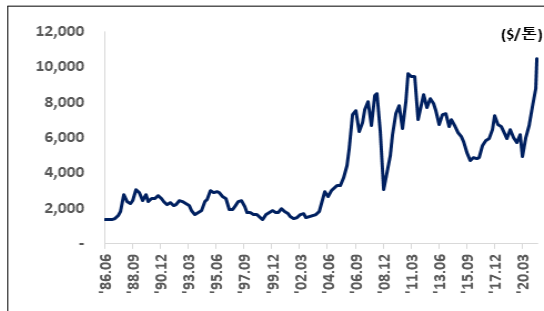
● (구리) 수급 불균형으로 구리 가격은 최근 톤당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

- 코로나19 초기에는 조업차질로 인한 공급 부족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부터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

-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로 중국 등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 그린 뉴딜 관련 수요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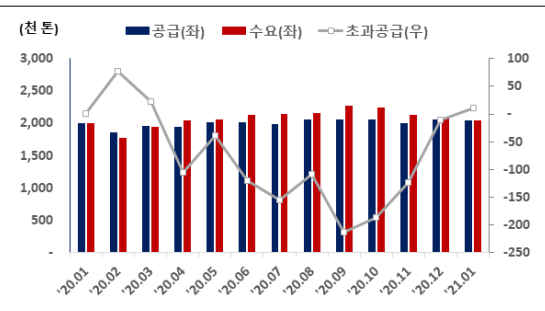
2) LME(London Metal Exchange, 런던금속거래소)는 세계적인 비철금속 거래소로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주석 등 비철금속이 거래되며 LME지수는 세계 비철금속 현물거래 가격지표로 활용됨

<구리 가격 추이>



자료 : LME,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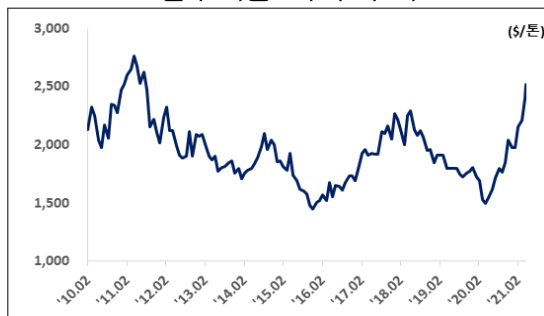
<구리 수급 동향>



자료 : ICSG, Bloomberg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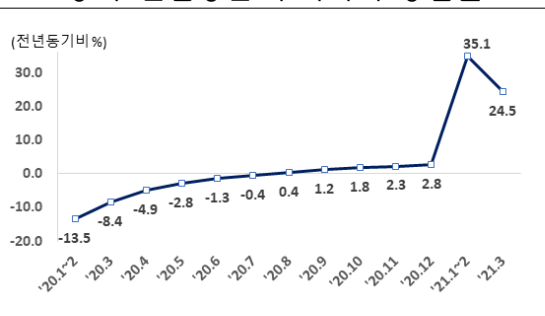
- (알루미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2,500달러까지 상승해 2011년 이후 최고가
 -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산업생산이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면서 인프라·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의 알루미늄 수요가 확대
 - 탄소 배출 제한 정책에 따라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알루미늄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알루미늄 가격 추이>



자료 : LME,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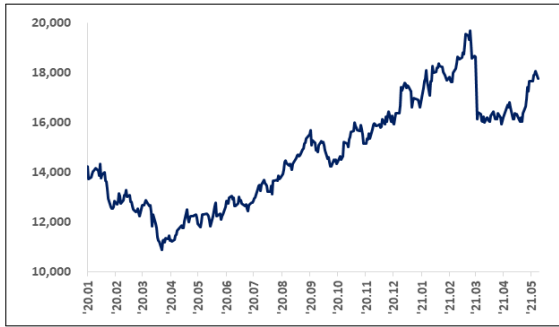
<중국 산업생산 부가가치 증감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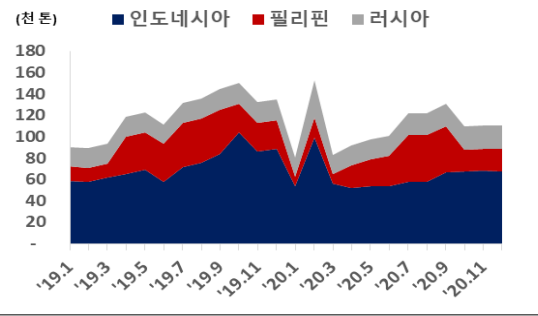
- (니켈) 코로나19로 인한 광산 조업 차질 및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니켈 가격은 톤당 19,000달러까지 상승한 뒤 최근 18,000달러 내외에서 등락
 -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 주요 광산 니켈 공급은 코로나19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의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니켈 수요가 늘어난 점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 중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판매량은 51.5만대로 전년동기비 358.8% 증가

<니켈 가격 추이 >



자료 : LME, Bloomberg

<상위 채굴 3개국 공급량>



자료 : Bloomberg Intelligence

- (기타) 제조업 경기회복, 주요국 경기부양책 영향,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가격도 동반 상승세

* 아연 가격(달러/톤, 기말기준, LME) : ('20.4) 1,940 → (8) 2,515 → (12) 2,751 → ('21.4) 2,926

* 주석 가격(달러/톤, 기말기준, LME) : ('20.4) 15,197 → (8) 17,950 → (12) 20,325 → ('21.4) 28,690

* 납 가격(달러/톤, 기말기준, LME) : ('20.4) 1,636 → (8) 1,973 → (12) 1,994 → ('21.4) 2,152

■ 바이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양책, 주요국 저탄소 경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에 힘입어 향후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가격은 강세 유지 전망

-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및 美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영향으로 관련 비철금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 등락 가능성 상존
 - 美·中·EU 등 주요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계획함에 따라 관련 비철금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광대역 통신망 확충, 제조업 강화 등을 목표로 2조 달러 규모의 투자 부양책을 발표

<비철금속 가격 전망>

(달러/톤, 전망치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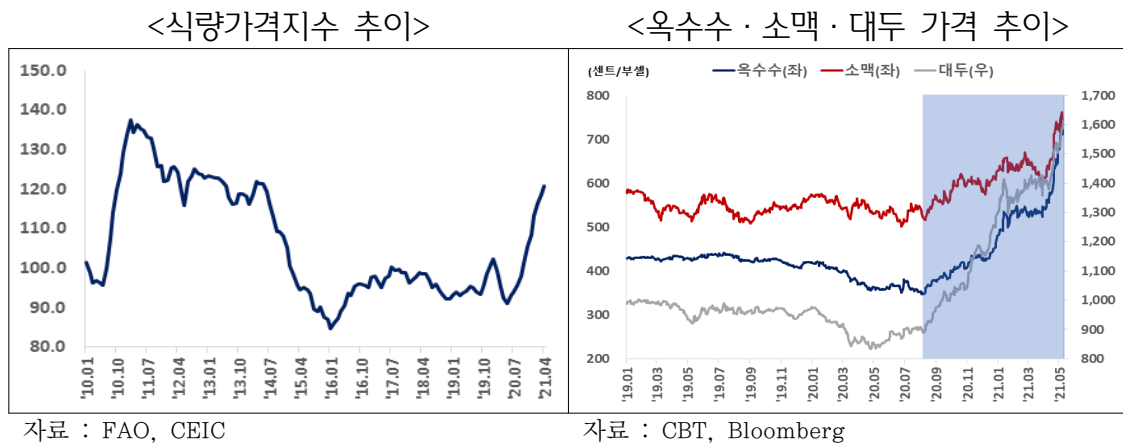
품목	2021				2022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연간
구리	8,809	8,588	8,550	8,499	8,267
알루미늄	2,200	2,200	2,100	2,078	2,013
니켈	17,007	17,500	17,652	16,825	16,537
아연	2,803	2,778	2,861	2,706	2,670
납	2,045	2,001	2,026	1,988	1,963
주석	26,250	23,750	23,500	22,845	22,250

자료 : Bloomberg

3. 곡물

■ 옥수수, 소맥, 대두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하면서 세계식량가격지수³⁾는 올해 4월 120을 넘기며 6년래 최고치 기록

-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91.0으로 저점을 찍은 뒤 11개월 연속 반등해 올해 4월에는 120.9를 기록
- 주요 곡물 중 대두는 지난해 3월 부셸당 8달러를 기록했으나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해 최근에는 15달러 내외를 오가고 있으며, 옥수수와 소맥은 7달러에서 등락



■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여건 악화,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및 물류적체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 식량난 대비, 사료용 곡물 확보 등을 목적으로 중국이 對美 곡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면서 곡물가가 상승

– 지난해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송난까지 겹치면서 곡물 공급도 차질

* 중국의 對美 곡물 수입량('18/'19→'19/20, USDA, 천톤) : (옥수수) 319→3,020 (소맥) 45→762

** 중국의 對美 곡물 수입액/증감률('19→'20, 백만 달러, HS4단위 기준) :
(옥수수) 75 → 959 (1,186.6%) (소맥) 67 → 464 (589.2%) (대두) 6,686 → 10,644 (59.2%)

3)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유엔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24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조사해 매월 발표하는 지수로 2014~2016년 평균치가 기준치 100

- 중국의 강한 수입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상하방 요인이 혼재

<세계 곡물 생산/재고량 추이 및 전망>

(백만 톤)

구분	품목	'18/19	'19/20	'20/21
생산량	옥수수	1,125	1,117	1,137
	소맥	731	764	776
	대두	361	339	363
기말 재고량	옥수수	321	303	284
	소맥	283	300	296
	대두	114	96	87

자료 : USDA('21.4월)

<곡물 가격 전망>

(센트/부셀, 전망치 중간값)

품목	2021				2022
	2Q	3Q	4Q	연간	연간
옥수수	590	575	525	538	493
소맥	670	650	640	620	580
대두	1,440	1,435	1,365	1,42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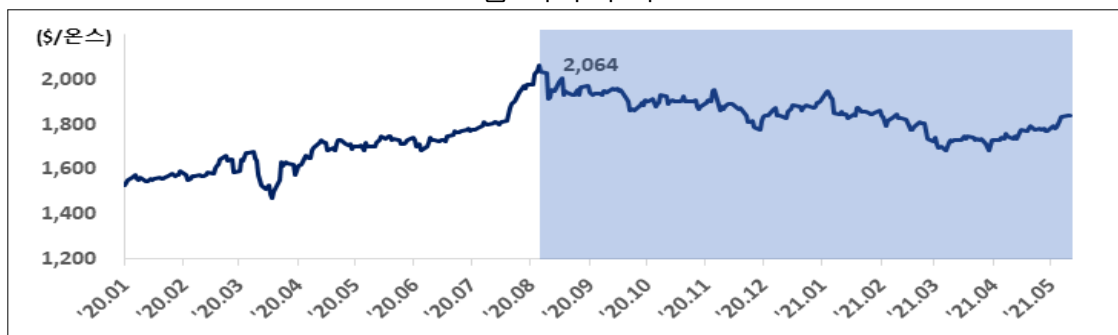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4. 금

- 금 가격은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넘겼으나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으로 1,8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보임

- 코로나19 확산기 시장 내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금 가격은 지난 8월 온스당 2,064달러까지 상승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 내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은 1,800달러 선까지 하락한 뒤 등락을 보이고 있음

<금 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 경기회복 지속으로 당분간 위험자산 선호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 긴축 우려 등 강세요인도 상존

- 금 가격은 연중 1,8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금 가격 전망(\$/온스, Bloomberg) : ('21.2Q) 1,775 ('21.3Q) 1,800 ('21.4Q) 1,768 ('21연간) 1,700

III.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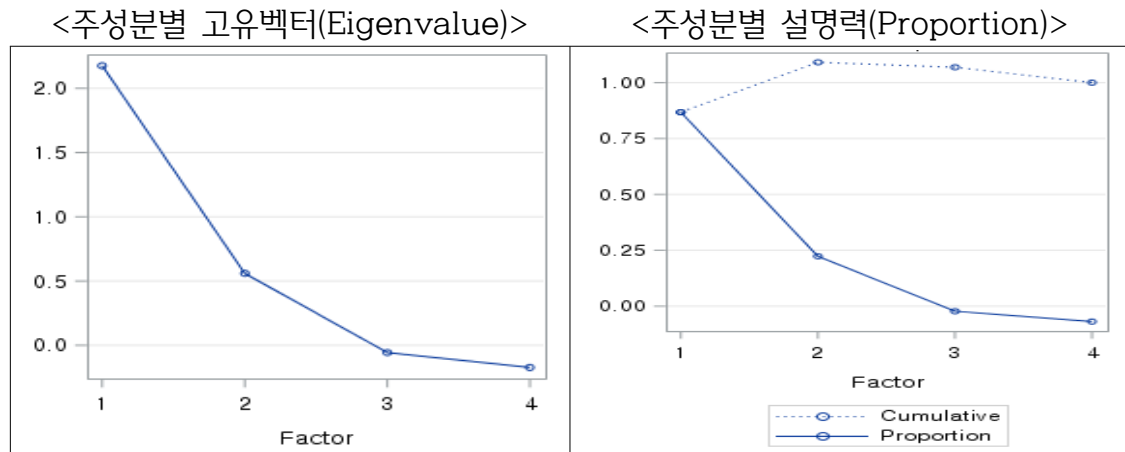
■ 국제원자재 가격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적용하여 원자재가격의 변동요인을 분석함

- 국제원자재를 구성하는 국제유가, 비철금속, 곡물, 금 지수 등 4개 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PCA)을 실시하여 공통 요인을 추출함

■ (공통요인, Common factor) 분석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와 위험자산선호라는 두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주성분인 글로벌 경기가 원자재 전체 가격변동의 86.8%, 두 번째 주성분인 위험자산선호가 2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성분 3과 4의 경우 고유벡터(Eigenvalue)가 음(-)이 나와 적정 공통요인에서 제외



주 : 1. 1999년 1월~2021년 2월 기간 대상, 월별기준, 원유는 브렌트유 기준

2. 고유벡터(Eigenvalue) =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Variance) 정도

3. 설명력(Proportion) = 주성분(PC)별 Eigenvalue 비중

자료 : Bloomberg, Petronet,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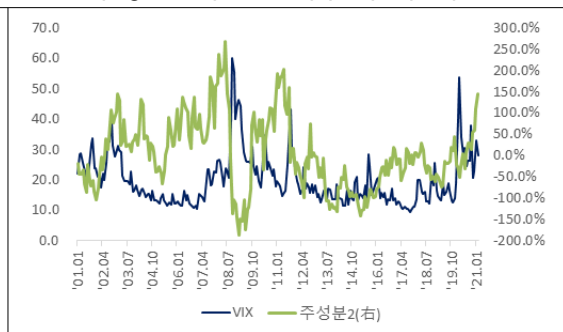
- 주성분1은 글로벌 경기, 주성분2는 위험자산 선호를 반영하고 있음
 - 원자재 가격변동의 86.8%를 설명하는 첫 번째 주성분(공통요인)은 세계 교역량과 글로벌 산업생산과 대체로 동행하며 상관관계 (2001. 1월~2020.5월 기간)가 각각 0.66, 0.62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격변동의 22.3%를 설명하는 두 번째 주성분은 공포지수 중 하나인 VIX지수⁴⁾와 음(-)의 상관관계(2001.1월~2021.2월 기간, -0.08)를 보이며, 동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됨을 의미함

<주성분1과 글로벌 경기지수 추이 비교>



자료 : Bloomberg

<주성분2과 VIX지수 추이 비교>



자료 : Bloomberg

- 국제 원자재가격은 글로벌 경기와 위험자산 선호 등 공통요인과 동조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이변 등 개별요인 (Idiosyncratic factor)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임
- 원자재 관련 품목 4개 중에서 비철금속과 원유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위험 자산 선호라는 공통요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
 - 상기 추출된 2개 공통요인(Common factor)이 비철금속의 가격변동을 98.7%, 원유의 가격변동을 97.9%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곡물과 금 가격 변동의 경우에는 공통요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나, 개별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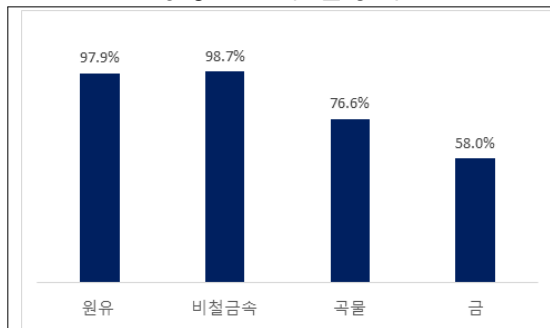
4) S&P 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내재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동 지수가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져 공포지수로도 불림. VIX지수가 낮을수록 위험선호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됨

- 주성분 1과 2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개별요인으로 인한 설명력이 금과 곡물 가격변동의 경우 각각 42.0%,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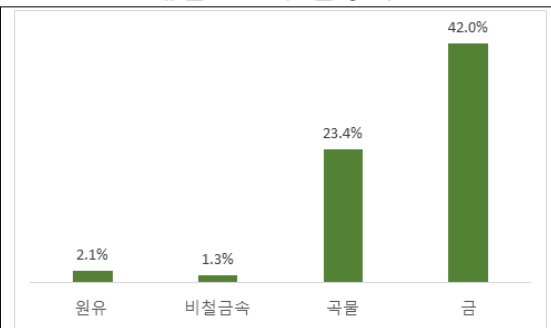
* 곡물 가격의 경우 글로벌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바이오 에너지 생산,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 수요 등 개별요인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됨

** 금 가격의 경우 달러화 가치, 주요국의 통화정책(실질금리), 안전자산 선호현상, 그 밖의 수요(귀금속(보석류) 수요, 투자수요, 중앙은행 수요, 산업(과학기술 수요)) 요인에 영향에 노출되어 공통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됨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개별요인의 설명력>



주 : 1. 주성분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의 조정된 설명계수, 브렌트유 기준

2. 개별요인의 설명력 = 주성분1,2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항

자료 : Bloomberg, Petronet, 저자 추정

[분석모형 :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 방법 :

- 관측 가능한 n 개 변수 사이의 분산-공분산 관계를 이용하여 이들 사이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되는 $q(\leq n)$ 개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PC)으로 차수(Dimension)를 축소시키고 이들 주성분으로 전체 변동을 설명
- 추출된 주성분 중 설명력이 높고 고유벡터의 부호 등을 통해 요인 식별이 가능한 2가지 성분을 **적정 공통요인**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개별요인으로 간주

○ 모형 : $F = XA$

여기서, $F : (T \times q)$ 의 주성분 행렬, $X : (T \times n)$ 의 T 기간 n 개 변수 시계열 행렬,
 $A : (n \times q)$ 의 고유벡터행렬(성분로딩행렬)

○ 공통요인 및 개별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설명력 :

- $y_{i,t} = \lambda_i f_t + e_t$ 에서 각각 공통요인($\lambda_i f_t$)에 의한 가격변동과 개별요인(e_t)에 의한 가격변동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 (여기서, λ_i : factor loading, f_t : factor)

IV. 수입원자재 가격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 본 장에서는 수입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살펴봄
- 수입품의 가격 변동은 먼저 당해 수입상품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 가격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어 이들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 제품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침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를 기반으로 수입원자재가 각 산업에 투입 되는 구조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을 분석함
 - 국내 산업 중 수입원자재 투입 비중이 높을수록,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큰 특정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분석모형 : 가격파급효과]

□ 목적 :

-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각 부문이 생산하는 데 투입된 원가구조를 파악 가능
- 생산 원가의 구성을 이용하면 임금 등 본원적 요소와 수입품가격 등이 변동하는 경우 각 부문의 가격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측정가능

□ 모형 : $P^d = (I - A^d)^{-1}(A^m P^m + \hat{A}^v P^v) \rightarrow \dot{P}^d = (I - A^d)^{-1}(A^m \dot{P}^m + \hat{A}^v \dot{P}^v)$

-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경우 : $\dot{P}^d = (I - A^d)^{-1} A^m \dot{P}^m$
(단, 부가가치의 변동은 없음($\dot{P}^v=0$))을 가정)
- 본원적 요소인 임금 등이 인상되었을 경우 : $\dot{P}^d = (I - A^d)^{-1} \hat{A}^v \dot{P}^v$
(단, 수입품 가격은 변동이 없음($\dot{P}^m=0$))을 가정)

여기서,

A^d : 국산투입계수행렬, A^m : 수입투입계수행렬, \hat{A}^v :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
 P^d : 국산중간투입재의 가격벡터, P^m : 수입중간투입재의 가격벡터,
 P^v : 부가가치의 단위가격벡터, \dot{X} : X 의 변동률

□ 한계 :

- 가격이 변동할 때 각 부문이 이들 요인에 비선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투입비용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의 파급효과가 상이(비대칭적)할 수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지 못함
- 본원적 요소와 수입품 가격이 동시에 변동하였을 경우, 이들 두 외생적 요인의 교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함.
- 투입비용의 변동이 모두 제품가격에 반영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되어,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가격반영효과를 파악하기 곤란함

■ 2018년 기준 국제원자재 관련 품목(철강, 비철금속제품, 석유화학 제품⁵⁾)의 수입가격이 각각 10% 상승할 경우, 국산품 가격(생산자가격 기준)이 평균적으로 연간 0.4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제품의 수입가격이 10% 상승을 가정할 경우, 국산품 가격(전 산업(제조+서비스), 생산자물가 기준)은 각각 0.25%, 0.10%, 0.0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변동이 업종별 국산품 가격(생산자물가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비철금속(2.87%)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철강 제품(1.77%), 석유화학(1.48%), 금속제품⁶⁾(1.11%), 선박(0.93%), 전기·전자⁷⁾(0.82%), 자동차(0.75%)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비철금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2018년 기준 55.7%인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폭도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업종별 수입의존도 (% , 생산자물가 기준 산업연관표 활용) :

(비철금속) 55.7 > (철강) 34.9 > (석유화학) 31.4 > (전기·전자) 27.2 > (선박) 21.5 > (자동차) 11.6 > (금속제품) 10.0

<국제원자재 관련 품목 가격 10% 상승 시 업종별 물가파급효과(2018년)>

	석유화학 10% 상승 (a)	철강 10% 상승 (b)	비철금속 10% 상승 (c)	총 효과 (a+b+c)
비철금속	0.10%	0.04%	2.74%	2.87%
철강 제품	0.06%	1.53%	0.18%	1.77%
석유화학	1.42%	0.04%	0.03%	1.48%
금속제품	0.12%	0.59%	0.40%	1.11%
전기·전자	0.43%	0.05%	0.34%	0.82%
선박	0.13%	0.69%	0.11%	0.93%
자동차	0.30%	0.24%	0.22%	0.75%
전 산업 평균	0.25%	0.07%	0.10%	0.43%

주 : 1. 총 효과 =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가격 각각 10% 상승 시 전체 효과

2. 전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생산자물가 기준) 활용하여 저자 추정

5)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제품(Naphtha)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Polyester, Nylon)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이에 본 보고서의 석유화학제품에는 기초화학물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화학섬유, 플라스틱, 고무 등이 포함됨

6) 금속주물, 금속가공제품 등이 포함됨

7) 반도체, 전기표시장치, 기타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이 포함됨

■ 금융위기 직후(2010년 기준)와 비교 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파급효과가 최근 들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원자재 관련 품목의 수입가격이 10% 상승 시 생산자 물가가 2010년 연간 평균 0.62% 상승에서 2018년 0.43% 상승으로 0.19%p 축소됨

- 국제원자재 가격 10% 상승 시 물가파급효과(생산자물가 기준) :
(2010년) 0.62% 상승 → (2018년) 0.43% 상승, 0.19%p 하락

- 원자재 관련 품목인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제품의 수입가격이 각각 10% 상승 시, 국산품 가격(생산자물가 기준)은 2010년 대비 2018년 들어 각각 0.06%p, 0.04%p, 0.09%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석유화학 가격 10% 상승 시 물가파급효과(생산자물가 기준) :
(2010년) 0.31% 상승 → (2018년) 0.25% 상승, 0.06%p 하락

- 비철금속 가격 10% 상승 시 물가파급효과(생산자물가 기준) :
(2010년) 0.15% 상승 → (2018년) 0.10% 상승, 0.04%p 하락

- 철강제품 가격 10% 상승 시 물가파급효과(생산자물가 기준) :
(2010년) 0.17% 상승 → (2018년) 0.07% 상승, 0.09%p 하락

<국제원자재 관련 품목 가격 10% 상승 시 전 산업 물가파급효과>

	석유화학 10% 상승 (a)	철강 10% 상승 (b)	비철금속 10% 상승 (c)	총 효과 (a+b+c)
2010년(a, %)	0.31	0.17	0.15	0.62
2018년(b, %)	0.25	0.07	0.10	0.43
차이(b-a, %p)	-0.06	-0.09	-0.04	-0.19

주 : 1. 총 효과 =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가격 각각 10% 상승 시 전체 효과

2. 전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생산자물가 기준) 활용하여 저자 추정

[참고자료]

□ 2018년 산업연관표(생산자물가 기준) 분석 결과

<국제원자재 관련 품목 가격 각각 10% 상승 시 업종별 물가파급효과>

	석유화학 10% 상승 (a)	철강 10% 상승 (b)	비철금속 10% 상승 (c)	총 효과 (a+b+c)
섬유 및 의복	0.46%	0.01%	0.02%	0.49%
가죽제품	0.61%	0.02%	0.02%	0.65%
목재 및 목제품	0.19%	0.03%	0.03%	0.25%
펄프 및 종이제품	0.21%	0.01%	0.02%	0.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0.20%	0.01%	0.02%	0.23%
석탄 및 석유제품	0.05%	0.01%	0.01%	0.07%
기초화학물질	1.03%	0.01%	0.03%	1.06%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75%	0.01%	0.02%	1.77%
화학섬유	1.90%	0.01%	0.02%	1.92%
의약품	0.69%	0.01%	0.03%	0.73%
비료 및 농약	1.35%	0.01%	0.02%	1.37%
기타 화학제품	1.63%	0.01%	0.22%	1.86%
플라스틱제품	1.38%	0.02%	0.04%	1.44%
고무제품	1.03%	0.16%	0.03%	1.21%
유리 및 유리제품	0.50%	0.01%	0.03%	0.5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17%	0.06%	0.04%	0.27%
철강1차제품	0.06%	1.53%	0.18%	1.77%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0.10%	0.04%	2.74%	2.87%
금속 주물	0.09%	0.76%	0.50%	1.34%
금속가공제품	0.15%	0.43%	0.30%	0.89%
반도체	0.28%	0.01%	0.18%	0.47%
전자표시장치	0.54%	0.04%	0.11%	0.69%
기타 전자부품	0.45%	0.06%	0.51%	1.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0.14%	0.02%	0.06%	0.22%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0.21%	0.02%	0.06%	0.29%
정밀기기	0.24%	0.05%	0.12%	0.40%
전기장비	0.46%	0.09%	0.55%	1.11%
일반목적용 기계	0.16%	0.24%	0.18%	0.58%
특수목적용 기계	0.14%	0.19%	0.11%	0.44%
자동차	0.30%	0.24%	0.22%	0.75%
선박	0.13%	0.69%	0.11%	0.93%
기타 운송장비	0.15%	0.09%	0.47%	0.71%
기타 제조업 제품	0.40%	0.07%	0.31%	0.78%
전 산업(제조+서비스) 평균	0.25%	0.07%	0.10%	0.43%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생산자물가 기준) 활용하여 저자 추정

V. 국제원자재 가격의 우리 수출에의 영향

■ 본 장에서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살펴봄

-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수출단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연결됨

❶ (단가 영향) 국내 수출가격이 원자재가격과 상대국의 수출가격, 원화 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수출가격 함수를 추정한 결과,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수출단가를 0.7%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년 동안 수출단가의 원자재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0.07로 추정됨

[분석모형 : 한국의 對세계 수출'단가'함수]

- 수출단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원자재가격, 경쟁국 수출가격, 원화환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대수형태로 설정

$$\log(EXP_t) = \beta_0 + \beta_1 \log(EXP_{t-1}) + \beta_2 \log(Comdty_t) + \beta_3 \log(WEXP_t) + \beta_4 \log(FX_t) + \epsilon_t : Adj R^2 = 98.1\%$$

- EXP_t , $Comdty_t$, $WEXP_t$, FX_t , ϵ_t 는 각각 t시점 기준 한국의 수출단가지수, 원자재 가격지수, 세계 수출단가지수, 원/달러 환율, 오차항 의미

- 예상되는 계수의 부호 : $\beta_2 > 0$, $\beta_3 < 0$, $\beta_4 < 0$

- 분석 기간 : 2000년 1월 ~ 2019년 12월 (월별 기말 기준)

<수출단가의 원자재가격에 대한 탄력성>

추정치	(β_0)	(β_1)	(β_2)	(β_3)	(β_4)
Estimate	0.899***	0.901***	0.070***	-0.131***	-0.038***
t-stat	7.43	67.21	6.81	-6.96	-3.16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 Bloomberg, IMF, BIS, CPB, BOK 등 자료를 기초로 저자 추정

- ② (물량 영향) 국내 수출물량이 상대국의 실질소득, 우리나라 수출가격 및 상대국의 수출가격,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수출 물량함수를 추정된 결과, 국내 수출단가 10% 상승 시 수출물량이 3.59% 감소함

- 지난 20년 동안 수출물량의 수출단가에 대한 탄력성이 0.359로 추정됨

- ③ (금액 영향)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수출단가 0.7% 상승, 수출물량 0.25% 감소를 초래하여 수출금액 면에서는 0.45% 증가 효과를 발생시킴

- 2000~2020년 동안 원자재가격지수와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금액 간의 상관관계가 0.68로 나타남

[분석모형 : 한국의 對세계 수출'물량'함수]

- 수출물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전 세계 실질 GDP, 교역 상대가격, 원화환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대수형태로 설정

$$\log(EXq_t) = \beta_0 + \beta_1 \log(EXq_{t-1}) + \beta_2 \log(RGDP_t) + \beta_3 \log(DEXP_t) + \beta_4 \log(WIMP_t) + \beta_5 \log(REER_t) + \epsilon_t : Adj R^2 = 98.2\%$$

- $EXq_t, RGDP_t, DEXP_t, WIMP_t, REER_t, \epsilon_t$ 는 각각 t시점 기준 한국의 수출물량 지수, 전 세계 실질소득, 한국의 수출단가지수, 세계 수입단가지수,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 오차항을 의미
- 예상되는 계수의 부호 : $\beta_2 > 0, \beta_3 < 0, \beta_4 > 0, \beta_5 < 0$
- 분석 기간 : 2000년 1월 ~ 2019년 12월 (월별 기말 기준)

<수출물량의 수출단가에 대한 탄력성>

추정치	(β_0)	(β_1)	(β_2)	(β_3)	(β_4)	(β_5)
Estimate	-4.403***	0.519***	0.828***	-0.359***	0.421***	-0.198**
t-stat	-3.5	10.26	7.84	-3.07	6.77	-2.45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 Bloomberg, IMF, BIS, CPB, BOK 등 자료를 기초로 저자 추정

VI.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글로벌 경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호로 활용 가능
 - 변동요인 분석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와 위험자산선호 두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국제원자재의 가격변동은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 가격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수입원자재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입원자재 관련 품목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2018년 기준 국내 생산자 물가가 연평균 0.4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같은 물가 파급효과는 과거(2010년 기준 0.62% 상승)에 비해 축소됨
 - 국제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비철금속(2018년 수입의존도 55.7%, 물가파급효과 2.87%), 철강(34.9%, 1.77%), 석유화학(31.4%, 1.48%) 등을 중심으로 물가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
-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수출단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를 발생시킴
 -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수출단가 0.7% 상승 및 수출물량 0.25% 감소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출금액을 0.45%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 유가가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큰 폭 상승하지 않는 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 확보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한 경영혁신, 생산공정 개선 등 전사적 차원의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응책으로 해외 원자재 공급원의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차질 없는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추진이 필요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Trade Focus 2021년 17호

발행인 | 구자열

편집인 | 박천일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 2021년 5월 31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